



조이 앙상을 합창단 아이들이 통일염원 콘서트 첫 순서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콘서트에서는 합창과 난타, 이희아 씨의 피아노 연주, 레이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노래 합시다”

평화재단 4월 9일 통일염원 콘서트... 잔잔한 감동 선사해



이희아 피아니스트는 연주 중간 중간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난타공연과 함께 통일퍼포먼스로 레이저쇼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이날 공연자들과 함께 호흡했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4월 8일 개최한 '광복 70년 기념 통일염원 콘서트'는 통일을 염원하는 한민족의 다양한 면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조이 앙상블 어린이 합창단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 합창부터 시작해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의 '아리랑 변주곡', 극단 청명의 '통일 레이저 퍼포먼스', 통일염원 합창단의 학수고대 공연까지 통일을 생각하는 사회 각층을 대변하는 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마치 통일이 막 이뤄질 것만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냈다.

'광복 70년 기념 통일염원 콘서트'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통일을 위해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실천에 나서자는 의지를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

"저처럼 몸이 불편한 이도 계속 노력해서 피아노를 치잖아요. 통일이든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에는 이룰 수 있습니다."

이날 관객들의 환호 속에 캐논변주곡에서부터 아리랑변주곡까지 많은 곡을 연주한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손가락이 양손에 2개 밖에 없고 다리도 짧은 기형아로 태어났음에도 이를 극복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날 연주 후 이 씨는 대중들에게 피아노 외에도 자신이 하고 있는 통일 운동을 소개해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북한이동 돕기와 관련 서적 편찬 등을 해온 이희아 씨는 최근 불편한 몸에도 통일부 홍보대사 역할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는 피아노 연주를 할 때마다 태극기를 그린다

는 마음으로 합니다. 나라를 지킨 독립운동가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반드시 통일을 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뒤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생각할 때 작은 실천하나가 긴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통일에 대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대중들과 함께 아리랑을 부른 이 씨는 요즘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필요성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며 이날 모인 아이들부터 조금씩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길 당부했다.

네 손가락 이희아 씨 아리랑 열창 재능기부로 공연 채워져 의미 참석자 "아이들에게 통일 알려자"

2급 장애인으로 이날 콘서트 장을 찾은 김혜숙 씨는 "장애의 몸으로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차츰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씨의 연주에 이어 등장한 극단 청명의 단원들은 레이저 쇼로 통일의 미래를 그려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넓은 극장이 어둠 속에 빠지고, 천장을 비롯한 천 위에 한줄기 빛이 밝혀졌다. 청명 단원들은 레이저로 분단의 벽을 허무는 것을 상징하는 춤을 추고, 이러한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동안 사람들은 탄성과 함께 큰 박수를 보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청명 단원들은 힙합 Bboy의 댄스와 함께 신명나는 난타 공연을 펼쳐 콘서트장을 찾은 이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1부 공연 후 사회를 맡은 이미란 씨는 "독일의 한 철학자는 민족이 완전히 갈라지는데 100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분단 70년만에 민족이 동질성을 잃어버리기 까지 불과 30년 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것을 한번씩이라도 말할 수 있는 시민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공연으로 소년소녀합창단과 통일염원합창단 등의 연합합창이 진행됐다. '홀로 아리랑'을 개사한 '함께 아리랑'이 불려지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관객들도 보였다.

지휘자를 맡은 서울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임창배 교수를 비롯한 합창단원들은 이날 재능기부로 자리를 빛내 의미를 더했다.

임 교수는 "1945년 광복의 그날, 70년 전 한 목소리로 외치던 '대한민국 만세' 합성과 기쁨을 기억해야 한다. 분단의 아픔을 넘어 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많은 이들이 공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송화 씨는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 아이들이 통일 노래를 처음 들어본다고 한다. '우리 세대에 통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해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행사 후 조성식 평화리더십 아카데미 총동문회장은 "그동안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통곡의 울음과 한 맺힌 뉘들리로 이어온 세월이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자리를 지속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통일에 한민족 미래 달려있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통일 밖에 없습니다. 이런 통일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통일 기원 콘서트를 개최한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평소 통일문제의 해결이 없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지론 하에 전국을 다니며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스님은 "먼저 시민들이 각성해야 한다"며 "이런 각성이 통일의 큰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위에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먼 미래 한반도의 주변국들이 점차 강대국이 될수록 통일의 길은 요원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담아 새로운 100년을 설계해야 한다. 진정한 통일 시대를 여는 지도자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밍마린포체(생불) 마정수기 수계 대법회

오늘 불자님들께서 수계를 받음으로서 불자임을 증명 하였습니다. 계행은 만행의 공덕으로서 삼계, 사생, 육도 중생들의 선구자가 되고 마침내는 불생불멸의 큰 깨달음을 증득하는 근본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자 하거든 꽃의 뿌리를 보호하고, 풍요로운 곡식을 얻으려고 하거든 병충해를 방지 해야 하며, 얼굴이 예뻐하려면 마음을 아름답게 쓰고, 병을 없애려거든 남을 미워하지 말며, 존경받고 사랑 받으려거든 윤리 도덕을 지킬 것이며, 생사의 고리를 끊고 해탈의 자유를 얻으려거든 계율을 잘 지키라 하였습니다. 하물며 계율은 제불보살의 어머니요, 팔만사천 공덕의 근본이며 삼라만상의 우주법계와 삼계 유정무정 일체 중생이 받들어 행하는 근본이므로 어느 누구든 계율을 받되 행하지 아니 하더라도 천신이 옹호 하는데 만약 수계를 받아 단 하나의 계율을 단 한번이라도 지키면 그는 마침내 부처가 될 종자를 받아시킵니다. 오계를 신수불행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신보다 위대하고, 자연보다 거룩한 자이니 우리 수계자는 밖으로는 다생부모와 제대 불보살님과 선구자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안으로는 나의 위치와 나의 사명을 다하는 불생불멸의 선구자임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부산자비선원 진성 큰스님

한번의 화를 내면 그 독이 팔만사천 지옥고를 이루고, 한번 환희심을 내면 팔만사천 연화대를 이룬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든 계를 받고 돌아서서 파괴를 하더라도 계를 받은 계를 받은 공덕으로 영겁의 습기가 소멸된다 하였으니 일생을 지킨다면 그 공덕은 유희의 쇠사슬을 끊고 깨달음의 큰 인연이 될 것입니다. 수계자님들은 악한 일을 하지 말며, 착한 일은 서로도와 나만이 계를 받아 지니는 좋은 인연에 만족하지 말고, 각각 자기의 일가친척 친구 인연 있는 이웃들에게 권하여 수계를 받게 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명복의 복전을 닦아주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일가친척 친구와 자녀는 물론, 후손들의 수계를 대신 받아주는 공덕은 해탈의 종자를 얻는다고 하였고, 수계시를 받는 불자는 성불의 인연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수계식이 있을 때마다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말고, 거듭 수계 받아 성불하시길 기원하며 이차인연 공덕으로 법계 일체중생의 성불과 불자님들의 심신의 무궁한 행복을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

부산자비선원 진성 합장

일시 : 2015년 4월 18일 (토) 오후 2시
장소 : 부산자비선원 (부산 남구 문현동 908-1) ☎ 051)633-8445

■ 동참하신 분에 한해서 밍마린포체(생불) 부처님께서 직접 ▶ 수계첩 ▶ 금강경 도장 ▶ 팔상도 스카프 증정합니다.

